

연주 및 성악곡 안내

- A wonderful Day of June(유월의 어느 멋진 날에) / Rolf Lovland 메조소프라노 함정덕, 테너 김영준
"눈을 뜨기 힘든 가을 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로 시작하는 이 듀엣곡은 이제 시월이 아니라 모든 달을 그 제목에 붙여 부르는 애창곡이다.
- Il Bacio(입맞춤) / Luigi Arditi 소프라노 안은영
입맞춤의 설렘과 즐거움을 노래한 잘 알려진 노래로 곡의 도입부에 침표가 많은 것이 키스할 때의 망설임과 떨림을 표현하기 위한 작곡가의 의도라고 알려져 있다.
- Nessun dorma(공주는 잠못이루고) / G.Puccini 오페라 "투란도트" 중에서 테너 김달진
중국의 베이징에 살고 있는 얼음공주 투란도트와 결혼하려면 목숨을 걸고 세 가지의 수수께끼를 모두 맞혀야 한다. 결국 칼라프 왕자가 모두 맞히지만 공주는 이름도 모르는 자와 결혼할 수 없다며 버틴다. 이에 칼라프는 투란도트에게 만일 그녀가 동이 트기 전에 자기의 이름을 알아낸다면 자신의 목을 바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마땅히 자신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혼자 남아서 베이징의 모든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려 잠들지 못하겠지만 결국 새벽에는 자신이 승리할 것이라고 노래한다는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다.
- Funiculi Funicula(푸니쿨리 푸니쿨라) / L.Denza 다같이
높은 화산을 함차게 올라가는 전차 - 케이블카가 만들어진 후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용하기를 꺼려하자 홍보 목적의 CM송 개념으로 만들어졌다는 Funiculi Funicula!
- O sole mio(오 나의 태양) / Di Capua 다같이
18세기 초 나폴리 축제를 중심으로 <오 솔레 미오>, <돌아오라 소렌토로>등 많은 명곡이 나왔다. 이 행사는 한때 중단되었다가 1953년부터 나폴리 칸초네페스티벌(나폴리가요제)로 부활되었다. 오늘날에는 북서부의 산레모가 그 중심지로 바뀌었고 1951년에 시작된 산레모가요제는 1958년에 최우수곡으로 뽑힌 <볼라레>가 세계적으로 히트함으로써 국제적인 색채를 띠기 시작. 로코나 라틴리듬을 도입한 곡들도 내보내고 있다.
- Pirates of the Caribbean(카리비언의 해적) OST / Klaus badelt 오케스트라
영화 캐리비언의 해적의 주제음악
- Brindisi(축배의 노래) / G.Verdi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다같이
파리 사교계의 불행했던 마리 듀프레시라는 실제 여성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뒤마의 소설을 오페라로 작곡하여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연되는 작품 중에 하나가 된 라트라비아타. 본래 제목은 '동백꽃을 꽃은 여인'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춘희'로 번역되었다. 무도회에서 평소엔 연모하던 비올레타를 만나게 된 알프레도는 축배를 들며 영원하고 순수한 사랑을 노래하는데 이를 받아서 비올레타는 덧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그냥 이 순간을 즐기자고 노래한다.

찾아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 한숲길 22번지 전화 : 02)810-5057,8 / 팩스 : 02)810-5197
www.seoulwomen.or.kr

서울시 女幸프로젝트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기념 콘서트
女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클래식 旅行’

2010. 6. 11 | Fri | 8:00 - 9:30 PM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

女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클래식 旅行’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지난 2007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온 女幸프로젝트 UN 공공행정상 대상 수상을 기념하여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는 6월, 서울시 女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행복한 클래식 旅行' 공연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女幸프로젝트를 추진해 오신 모든 분들과 행복한 서울시민 모두가 국내 유명 성악가들의 오페라 아리아 향연으로 꾸며질 '행복한 클래식 旅行'으로 행복을 나누는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계속 여성, 가족, 시민 여러분과 함께 행복을 나누는 예술의 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女幸오케스트라



지휘자 송 영 주

한양대 음대졸업,
현재 명신대학교 교수,
광명청소년 교향악단,
코리아 오페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금천구립합창단,
금천 필하모니 지휘자

- 제1바이올린 악장 고성희 / 스베타 / 김하나 / 지민 / 김진경 / 김현희 / 염준화
- 제2바이올린 김진희 / 주수현 / 성현옥 / 박혜경 / 김은경
- 비올라 주예리 / 김연희 / 김선덕 / 문영 • 콘트라베이스 최혜진 / 윤자영
- 첼로 수석 안희정 / 부수석 김대선 / 홍덕희 / 이현미
- 플루트 이영섭 • 오보에 수석 황인권 • 클라리넷 정은영
- 바순 수석 권오영 • 호른1 김권배 • 호른2 김초희 • 트럼펫 오재수
- 트럼본1 이종민 • 트럼본2 최진환 • 팀파니 양수민

출연자 프로필



테너 김 달 진

한양대 음대졸업,
독일 ESSEN FOLKWANG 음대 대학원 졸업,
현재 광명오페라단 단장



테너 김 영 준

추계예술대 성악과 졸업,
이태리 레나노, 빠르마 아카데미아 졸업
로사리오합창단 지휘자, 이 솔리티 단장



베이스바리톤 이 준 봉

추계예술대 성악과 졸업,
이탈리아 베로나 국립 음악원 졸업
현재 가톨릭대, 서울예술교육연구원 출강



소프라노 강 명 숙

경희대 성악과 졸업, 프랑스 예폴 노르말
음악원 고등 성악과 졸업, 현재 서울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 전속 솔리스트



소프라노 안 은 영

경희대 성악과 졸업, 이태리 밀라노
베르디국립음악원 졸업,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세종대 공연예술대학원, 수원여대 출강



메조소프라노 함 정 덕

독일 하이델베르크-만하임 국립음대 졸업,
현재 수원과학대학 음악과교수

연주 및 성악곡 안내

- Le Nozze di Figaro(피가로의 결혼 서곡) / 모차르트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오케스트라
프랑스의 극작가 보마르셰가 쓴 풍자 희극. 알마비바(Almaviva) 백작의 시종 피가로는 바람둥이 주인을 지혜로 골려주고 백작 부인의 시녀 수잔나와 결혼한다는 내용으로, 모차르트가 보마르셰의 희극을 대본으로 작곡하여 1786년에 초연되었으며 4막으로 되어 있다.
- Che soave Zeffiretto(부드러운 산들바람) / W.A.Mozart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중에서 소프라노 안은영, 소프라노 강명숙
영화 쇼생크탈출을 통해 유명해진 백작부인과 수잔나의 이중창으로 백작의 바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부인이 남편을 함정에 빠뜨릴 편지를 수잔나에게 받아 적게 하는 장면으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노래다.
- Granada(그라나다) / Agustin Lara 테너 김영준
'멕시코의 어빙 벌린'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대작곡가 아구스틴 라라의 작품이며, 1932년에 만들어졌다. 이 곡은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옛 도시 그라나다의 풍물과 춤추는 아가씨의 모습 등을 그리고 있다. '아름다운 하늘이 부르는 그라나다. 그녀의 멋진 추억이 담긴 그라나다. 빛나는 햇빛과 꽃, 그리고 노래가 넘치는 나라. 밤이 되면 별은 반짝이고, 많은 기타가 부드럽게 하바네라를 연주 하네. 그라나다, 다시 한 번 살고 싶어라. 오래된 영광과 로맨틱한 기쁨의 나라'.
- Ah! forse lui(아!그이 였던가...) / G.Verdi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소프라노 안은영
파리 사교계의 꽃인 비올레타의 집에서 파티가 열리고, 시골의 젊은 귀족 알프레도는 평소 연모하던 그녀와 축배를 들며 노래 한다. 폐병을 앓고 있는 비올레타는 처음엔 그의 사랑에 망설이나 그의 진실한 사랑에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기쁨이 생겨남을 노래하는 너무나 유명한 아리아다.
- Au fond di temple(신성한 사원에서) / G.Bizet 오페라 "진주조개잡이" 중에서 테너 김영준, 베이스바리톤 이준봉
<카르멘>으로 유명한 비제의 또 하나의 명작이 <진주조개잡이>인데, 지금의 스리랑카인 고대의 실론 섬을 무대로 펼쳐지는 환상 적인 작품이다. 한 때 사랑의 라이벌이었던 두 주인공은 <신성한 사원에서>를 부르며 우정을 다짐한다. 젊은 두 청년 나디르와 주르가는 깊은 우정을 나눈 절친한 친구였지만, 어느날 동시에 한 여인에게 반함으로서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다. 결국 나디르는 고향으로 떠나고 그 동안 주르가는 부족의 족장이 된다.
- La donna è mobile(여자의 마음) / G.Verdi 오페라 "리골레토" 중에서 테너 김달진
리골레토는 자신의 딸의 순결을 더럽힌 공작에게 복수하기 위해 공작을 죽이라고 청부한다. 스파레푸칠레는 동생의 미모를 이용 해 자신의 여관으로 공작을 유인하고, 공작이 찾아 와서는 여자의 마음에 대해 노래하는 장면이다. 동생 막달레니는 처음 계획과 달리 그에게 매력을 느끼고, 질다는 결국 사랑을 위해 공작을 대신하여 죽는다. 리골레토는 자신의 품에 안긴 딸을 보며 저주를 떠올린다.
- Vissi d'arte vissi d'amor(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 Puccini 오페라 "토스카"중에서 소프라노 강명숙
친구 안젤로티를 숨겨준 죄로 옥에 갇힌 연인 카바라도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스카르피아는 그를 살려두는 대신 담보로 그 녀의 사랑을 협박하며 요구하는데 토스카는 괴로워하며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살아있는 것에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죠" 라는 노래를 부른다.
- Carmen overture(카르멘 서곡) / G.Bizet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오케스트라
집시여인의 사랑과 비극을 배경으로 한 비제의 최후의 오페라이자 최고의 걸작 <카르멘>은 메리메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전 4막 오페라로 초연에는 별 호평을 받지 못했으나 그 후에 대성공을 거둔 이래 세계 오페라 무대를 석권하는 인기작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오페라다. 이곡은 독립되어 콘서트에서 흔히 연주되므로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한 곡이다.
- Habanera(하바네라) / G.Bizet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메조소프라노 함정덕
정열적이고 자유분방한 집시여인 카르멘이 마을 광장에서 자유로운 새와 이은 사랑을 노래하는 장면이다. 카르멘은 담배공장에서 싸움을 벌여 붙잡히고 자신을 연행하는 돈호세를 유혹해 도망간다. 이로 인해 돈호세는 대신 영창에 들어간다.
- Toreador song(투우사의 노래) / G.Bizet 오페라 "카르멘" 중에서 베이스바리톤 이준봉
정열적이고 자유분방한 여인 카르멘과의 사랑에 빠진 하사관 돈호세는 정순한 약혼녀 미카엘라의 사랑과 어머니의 바람도 뒤로한 채 군대도 탈영해서 밀수꾼들에 가담한다. 잠시나마 꿈같은 시간을 보내지만 '투우사의 노래'를 부르며 등장하는 투우사 에스카미 요에게 마음을 빼앗긴 카르멘과 그녀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돈호세. 결국 질투에 눈이 멀어 그녀를 죽임으로써 막을 내린다.